

주민이 알아야 할

빈대 정보집

2023. 11. 24



보건행정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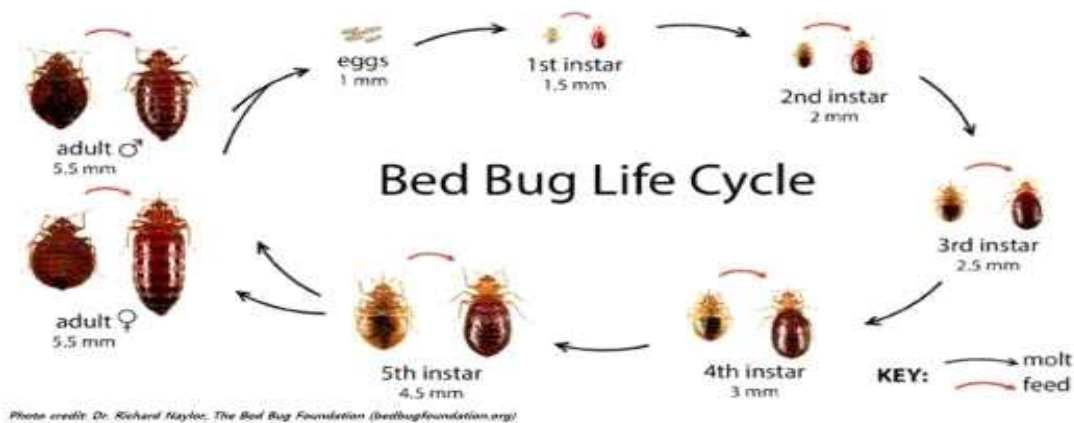
- 순 서 -

I . 빈대 년 누구냐?	-----	1
II . 빈대 발견하는 방법		
1. 빈대 발견하기 쉬운 장소	-----	2
2. 빈대 물린 자국의 특징	-----	2
III . 빈대 발견시 방제 방법		
1. 방제의 원칙	-----	3
2. 물리의 방제	-----	3
3. 화학적 방제	-----	3
4. 살충제 사용시 주의사항	-----	3
IV . 빈대에 물렸을 때 대응 순서(치료법)	-----	4
V . 빈대 관련 질의 응답	-----	4
붙임 : 빈대와 유사한 곤충	-----	7

I. 빈대(Bed Bug) 넌 누구냐?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기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 해충은 아니지만, 인체 흡혈로 인한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 및 이차적 피부감염증을 유발하는 등 불편을 주는 해충이다.

- 빈대는 약 1mm~5~6 mm, 상하로 납작하게 눌린 난형이며 진한 갈색을 띠
- 빛이 있을 경우 밖으로 나오지 않음(빛이 있을 경우 찾기 힘들)
- 바퀴벌레와 달리 속도가 매우 느려 빨리 숨지 못함
- 다리에 털이나 가시가 없음(바퀴벌레는 가시와 털이 있음)
- 흡혈 욕구가 강하고, 주로 야간에 흡혈하는 습성으로 수면을 방해함
- 불완전변태의 생활사를 가지고 있어 알에서 약충 5령기를 거쳐 성충이 됨
- 약충은 5회 탈피(molt)하며 각 령 마다 최소한 1회의 흡혈이 필요
- 암수 모두 1주일에 1~2회 흡혈하며, 10분간 몸무게의 2.5 ~ 6배 흡혈
- 성충의 수명은 온도에 영향을 받음 ▶18~20℃에서 9~18개월; 27℃, 15주; 34℃, 10주
- 하루 2~5개의 알을 2~3일 간격으로 낳아 일생동안 약 200개 산란함
- 빈대는 7℃(46°F)의 낮은 온도에서 생존하고 활동을 유지할 수 있지만 체온이 45℃ 에 도달하면 활동을 멈추거나 죽음
- 빈대는 흡혈을 위해 은신처에서 1.5~3m 정도 이동함



CDC/CDC-DPDx; Blaine Mathison 성충 사진



빈대 성충과 배설물(US환경보호청)

II. 빈대(Bed Bug) 발견하는 방법

빈대는 주로 야간에 수면 중인 사람을 흡혈하기 때문에 침대 등 사람이 잠을 자는 위치와 가까운 곳에 주로 서식

1. 빈대를 발견하기 쉬운장소

- 의자와 소파의 이음새, 쿠션 사이, 커튼의 주름
- 서랍 조인트
- 전기 콘센트 및 가전제품
- 헐렁한 벽지와 벽걸이 아래
- 벽과 천장이 만나는 교차점
- 나사의 머리에도 서식

- 흡혈할 때만 잠시 나타나고 흡혈 후 어두운 곳에 숨음

* 섬유질, 목재, 종이로 된 틈새에 숨어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침대 매트리스나 프레임, 소파, 책장 또는 이불이나 침구류 등에 숨어 있음



매트리스 이음새, 자크 등에서 발견된 벼룩(Dini M.Miller, PH.D., Department of Entomology, Virginia Tech)

2. 물린 자국 특징

- 주로 여러개가 무리를 지어 있거나, 길게 나타나기도 함
- 물렸다고 금방 나타나지 않고 며칠 뒤에 물린자국이 보일 수도 있음
- 자국이 물집의 형태이거나, 붉은 돌기형태, 납작한 반점이 생기기도 함
- 모기 물린 것과 비슷하나, 좁은 부위에 여러 개의 자국이 발생하기도 함
- 주로 옷으로 가려지지 않은 팔, 손, 목, 다리 등 노출 부위를 물며,
- 혈관을 잘 찾지 못해서 2~3곳을 연달아 물어 일렬이나 원형으로 자국이 생김



Photo Credit: Tim Stock, Oregon State University



Photo Credit: Harold Harlan, Armed Forces Pest Management Board



Photo Credit: Harold Harlan, Armed Forces Pest Management Board



Photo Credit: Dini Miller, Virginia Tech Bed Bug and Urban Pest Information

Ⅲ. 빈대(Bed Bug) 발견 시 방제 방법

1. 방제원칙: 빈대 방제는 물리적 방제와 화학적 방제를 병행

○ 빈대 확인 후 실시 요령

- 오염된 매트리스, 가구 등은 방제 후 재사용 여부 판단
 - * 모든 빈대가 제거될 때까지 커버 유지
 - 오염된 물품 폐기 시, 반드시 방제 후 폐기
 - * 방제 없이 폐기 시, 빈대가 새로운 장소로 확산 및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필요
 - 방제 후, 정기적으로 서식 장소에서 빈대 유무 확인
- 다가구, 숙박업소 등 오염 장소 주변으로 동시에 방제 진행

2. 물리적 방제

○ 스팀 고열을 빈대가 서식하는 가구 틈과 벽 틈에 분사하여 방제

- 카펫은 살충제 처리 전 스팀 청소
- 벽에 맞닿아 있는 카펫(특히, 침대의 머리맡 부분)은 반드시 방제

○ 진공 청소기를 이용하여 침대(box spring 내부 필수), 매트리스, 소파, 가구, 벽지, 책 등

- 오염된 모든 장소 주변의 알, 자충, 성충을 포집하여 제거
- 진공 청소 끝난 후 내용물을 진공 봉투에 버림(위생팩 등에 밀봉하면 자연사멸 됨)

○ 오염 직물(의류, 커튼, 침대커버 등)은 50~60°C 건조기에 약 30분 이상 처리하여 방제

※ 스팀청소기가 없을 경우 헤어드라이어 고온풍으로도 부분 살충 가능

3. 화학적 방제(살충제 등)

○ 빈대 서식처 확인 후 살충제(환경부 허가 제품) 처리, 이때 매트리스, 침대 라인 제외

○ 서식처 틈새에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를 잔류분무 처리

*1 제품 라벨에 표기된 용법·용량에 따라 사용하기!!

- 벽 틈(시멘트, 나무)에는 액상수화제나 마이크로캡슐제를 사용하고,
- 페인트 바른 시멘트벽이거나 합판인 경우, 잔류분무용 유제를 사용

*2 일반적으로 구입가능 한 살충제(모기, 파리)중 성분이 피레트린이 들어 있는 제품 사용 가능 (내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까지 살충제 중에선 가장 안전한 제품임)

*3 2023. 11월중 긴급 승인된 약품은 전문가용으로만 승인이 났으며,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를 가정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 등의 후속 승인 절차를 즉시 착수했고, 내성이 덜한 또 다른 살충제에 대해서도 추가 발굴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정부 브리핑)

4. 살충제 사용시 주의사항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확인대상생화학제품 승인된 제품만 선택할 것
- 분무시 피부나 호흡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복과 장비를 착용할 것
- 살충제 분무시 작업자를 제외하고 해당공간에 사람들을 머무르지 않도록 할 것
- 살충제의 용량용법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읽고, 지켜 필요한 곳에 최소한으로 사용
- 살충제 처리 작업후 반드시 충분히 환기시킬 것
- 살충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의류, 침대, 이불, 매트리스 등 사용금지)
- 영유아, 어린이나 노약자자 닿을 수 있는 표면은 고온스팀처리 할 것

IV. 빈대에 물렸을 때 대응 순서(치료법)

- 빈대에 물렸다면, 우선 물과 비누로 씻고 증상에 따른 치료법 및 의약품 처방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여야 한다.(감염병은 옮기지는 않지만, 긁어서 상처가 날 수 있음)
- 사람마다 반응 시간(잠복기 최대 10일)이 다를 수 있음
- 처방 약물 ▶ **항히스타민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크림을 도포 함**
- 빈대 물린 자국은 약 1주일이면 사라짐
- 간지러움 때문에 긁어서 2차 감염의 위험이 큼(긁지 못하게 예방함)
- 긁지 말고 똑똑 두드리거나, 얼음찜질을 하면서 가려움증을 감소시킴

V. 빈대(Bed Bug) 관련 질의응답(Q&A)

Q1. 빈대는 무엇입니까?

- 빈대(*Cimex* spp.)는 잠자는 동안 사람과 동물의 피만 먹는 작고 납작한 기생 곤충입니다.
- 적갈색이고 날개가 없으며 1 mm에서 7 mm이며 피를 먹지 않고도 몇 달 동안 살 수 있습니다.

Q2. 빈대는 어디서 발견됩니까?

- 빈대는 북미와 남미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및 유럽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발견됩니다.
- 빈대의 존재는 전통적으로 개발 도상국에서 문제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에는 미국, 캐나다, 영국 및 기타 유럽 일부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빈대는 5성급 호텔과 리조트에서도 발견되었으며 빈대의 존재는 빈대가 발견되는 생활 조건의 청결도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Q3. 빈대가 질병을 퍼뜨리나요?

- 빈대는 질병을 퍼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 가려움증과 수면 부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려움증이 과도한 긁힘으로 이어져 2차 피부 감염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4. 빈대는 어떤 건강 위험을 초래합니까?

- 빈대에 물리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물린 반응은 물린 부위의 신체적 징후가 없는 것부터 작은 물린 자국,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 빈대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물렸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빈대는 침입의 징후와 증상은 무엇입니까?

- 빈대 침입을 식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잠자는 동안 얼굴, 목, 팔, 손 또는 기타 신체 부위에 있는 명백한 물린 자국을 보는 것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물린 자국은 일부 사람에게 발생하는 데 최대 14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빈대가 해당 지역에 감염되었는지 확인할 때 다른 단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탈피 후 빈대의 외골격
 - 매트리스와 시트의 접힌 부분에 있는 빈대
 - 붉은색의 핏자국과 검붉은 배설물
 - 노린재와 비슷한 노릿한 냄새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 → 알람자료 → 홍보자료 → 영상자료(1편 빈대의 발견)

Q6. 빈대에 물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빈대나 침입의 징후를 찾지 않는 한 빈대에 물렸는지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빈대가 물면 마취제와 항응고 성분을 주입하여 사람이 물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물린 후 하루에서 며칠 사이에 물린 자국이 나타날 때까지 물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 물린 자국은 모기나 벼룩의 자국과 비슷한데, 약간 부어오르고 빨갱게 부풀어 올라 가렵고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 물린 자국은 무작위이거나 직선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빈대에 물리는 다른 증상으로는 불면증, 불안, 물린 부위를 많이 긁어서 발생하는 피부 문제가 있습니다.
- 빈대에 물리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반응이 없을 수 있으며 물린 자국이나 기타 눈에 띄는 물린 징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 → 알람자료 → 홍보자료 → 영상자료(2편 빈대에 물렸을 때 대처법)

Q7. 빈대에 물릴 위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감염된 지역을 방문하면 모든 사람이 빈대에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 특히, 자주 여행하고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잤던 주거 공간과 침실을 공유하는 사람은 물리거나 빈대를 퍼뜨릴 위험이 더 높습니다.

Q8. 빈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 빈대는 숨는 데 전문가입니다. 날씬하고 편평한 몸은 작은 공간에도 쉽게 숨을 수 있고 피를 먹지 않고도 오랫동안 살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특징으로 빈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행할 때 짐이나 가방에 숨어 이곳저곳으로 옮겨집니다.
 - * 수하물, 여행용 가방, 옷, 침구, 가구 등 숨을 수 있는 곳의 이음새와 접힌 부분을 통해 이동
-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빈대가 섞여 이동하면서 다른 지역을 감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Q9. 빈대에 물림은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합니까?

- 빈대 물림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의학적 위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 물린 부위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부위를 긁지 말고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s)가 함유된 크림, 경구용 항히스타민제 사용
-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 필요
- 빈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물품을 함부로 가정으로 가져오기 않기
- 여행 중 빈대에 경험이 있으면, 여행용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필요

Q10. 빈대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 우리나라보다 앞서 빈대에 대한 안내를 시행중인 미국 CDC 자료를 보면 버스와 기차에서도 빈대발생은 가능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버스나 기차가 여행 후 수하물 등을 통해서 빈대가 옮겨질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주요 서식지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 청결한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서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실 이유는 없으며 개인위생 유의와 여행 후 집관리 등 방역당국의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영상자료(1편 빈대의 발견)

Q11. 빈대가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행동요령)

- 빈대가 의심되는 경우 빈대의 주요 서식지 등을 중심으로 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물리적 방제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생존개체 및 탈피각(껍질), 알 등을 제거하고 해당 지점을 중심으로 스팀청소기를 이용하여 고온의 열처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 화학적 방제는 빈대의 서식지를 중심으로 환경부에서 빈대용으로 승인한 살충제를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영상자료(2편 빈대에 물렸을 때 대처법)

Q12. 빈대가 급격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나요?

- 최근 프랑스, 영국 등에서 빈대가 빈번히 출몰한다는 보고가 있고, 국제 교류가 증가에 따라 국내 확산 가능성이 있어 주의는 필요하나, 급속도로 확산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Q13. 가정에서의 물리적 방제 방안 중 스팀고열은 어떤 방법인가요?





- 스팀 고열은 빈대가 서식하는 가구 틈이나 벽 틈 또는 매트리스 등에서 먼저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생존 개체 및 탈피각(껍질), 알 등을 제거하고 그 부분에 고온의 열처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스팀청소기가 없는 경우 헤어드라이어 고온·약풍으로 열처리하시면 됩니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영상자료(3편 빈대의 물리적 방제)

빈대(Bed Bug)와 유사한 곤충류(1)

종명	사진	크기
<p>어리쌀바구미 (<i>Sitophilus zeamais</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딱정벌레목 바구미과의 곤충 - 몸길이 : 2.9-3.5mm - 서식지 : 곡식 저장소
<p>좀벌레 (<i>Ctenolepisma longicaudata coreana</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좀목 좀과의 곤충 - 몸길이 : 8-11mm - 서식지 : 싱크대, 옷장, 침대 밑 등의 습기가 많은 곳
<p>다듬이벌레 류 (<i>Psocoptera</i> sp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듬이벌레목의 곤충 - 몸길이 : 7mm - 서식지 : 화분, 돌담, 건물 벽면 틈새, 서재 등
<p>인삼벌레 (<i>Stegobium paniceum</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딱정벌레목 살 짝 수 염 벌레 과 의 곤충 - 몸길이 : 2-3mm - 서식지 : 식료품 저장실, 동물 사료 등
<p>머릿니 (<i>Pediculus humanus</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목 이과의 곤충 - 몸길이 : 2-3.5mm - 서식지 : 베게, 코트, 의류, 헤어빗 등

빈대(Bed Bug)와 유사한 곤충류(2)

종명	사진	크기
독일바퀴 (<i>Blattella germanic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퀴목 바퀴과의 곤충 - 몸길이 : 1.1~1.6cm - 서식지 : 주방, 침실, 욕실 등
벼룩 (<i>Pulex irritans</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벼룩목 벼룩과의 곤충 - 몸길이 : 2-4mm - 서식지 : 주택가, 반려동물 등
작은소피참진드기 (<i>Haemaphysalis longiconnis</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진드기과 영에참진드기속 - 몸길이 : 2.5-2.9mm - 서식지 : 주택가 외부 (초지 등)
톱가슴머리대장 (<i>Oryzaephilus surinamensis</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딱정벌레목 톱가슴머리대장과 - 몸길이 : 3 mm - 분포 :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 서식지 : 가구공장, 식품 저장소 등 - 가마니, 벽 틈새, 쓰레기더미 또는 돌무더기 속

※ 주의사항 : 곤충 크기 확인 후 비교